최근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색소폰 열풍이 한창이다. 예하색소폰동호회 회원들 역시 색소폰 연주를 통해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정을식·박성규·위왕규·박윤식·배종근·곽종운씨〈왼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중년 남성들의 낭만 색소폰 선율에 담다 ♪

"악기 배우며 건강도 챙겨요" 40~60대 인기… 앙상블 조직 작은 공연도

'중년 남자들의 로망, 색소폰.'

소설가로도 활동중인 법무사 정을식(61)씨는 색소폰 예찬론자다. 2년전 처음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한 후 요즘은 색소폰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흠뻑 빠져 있다. 정씨는 자신의 회갑잔치에서도 멋드러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줬다.

"색소폰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 언제부터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마음이 울적할 때는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날 더 즐겁게 해줘요. 음악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최곱니다. 최고."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예하음악학원에서 만난 정씨는 색소폰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열변을 토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들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이서길(58)씨 역시 색소폰이 첫번째 악기다. 20여년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다. 군시절 동기들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구박받았던 이씨는 얼마전 군 동기 모임에서 연주를 해 멋지게 복수를 했다.

회원들은 대부분 50~60대. 직업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하색소폰동호회를 조직했고 2월 초에는 가족들을 초청, 작은 카페에서 음악회도 열었다. 예하는 흘러간 옛노래 등 가요와 팝송, 칸소네 등 주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아라벨라 앙상블'에서 활동중인 치과의사 최영욱(54)씨는 색소폰을 배운지 1년 7개월째다. 시골 출신이다 보니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해 본적이 없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악기를 꼭 하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악을 전공한 딸의 조언을 받아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씨가 속한 아라벨라는 클래식 음악 위주로 연습을 하며 지난 11월에 정식 연주회도 열었다.

"무엇보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동안에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 버릴 수 있어서 좋아요. 연주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들거든요. 6개월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 부터 갈수록 어려워져 힘들기는 하죠.(웃음)."

색소폰의 매력에 빠져든 남성들이 늘고 있다. 특히 40~60대 남성들에게 인기다. 악기 하나쯤 연주하고 싶다는 건 많은 이들의 로망.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 뒤늦게야 꿈을 찾은 이들에게 배우기 너무 어려운 악기는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 색소폰 역시 연주할 수록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다른 관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초반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준다. 개인차는 있지만 1~2개월 꾸준히 연습을 하면 동요 정도는 연주할 수 있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색소폰 연주는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제대로 된 호흡법을 사용해야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호흡에 신경을 쓰다보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

최근에는 광주 시내에 색소폰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늘었다. 보통 한달 수강료는 15만원 수준. 악기는 초보자의 경우 60~70만 수준을 구입하면 된다. 연주를 계속 하다보면 악기 욕심이 생겨 더 좋은 악기를 구입하는 건 통과의례다. 색소폰의 종류는 바리톤, 테너, 알토 소프라노 등 모두 4가지가 있지만 보통 알토 색소폰을 많이 배운다.

대부분의 학원이 가요, 팝송, 클래식 음악 등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가르친다. 하지만 각 학원마다 앙상블을 조직, 정기연주회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 취향과 맞는 학원을 골라 지도를 받으면 훨씬 즐기며 연주를 할 수 있다.

예하음악학원 위왕규 원장은 "주로 퇴직자 등 노후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색소폰을 배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젊은층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돌아트 '좋은아침 54인의 시선'전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0호 이내 작품 소장 기회

한희원 작 '그림자 여행-짝사랑'

광주시 동구 궁동 무돌아트컴퍼니는 24~3월10일까지 '좋은아침-54인의 시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한희원, 송필용, 김평준, 조근호, 최종철, 주홍, 손봉채, 정선휘, 정운학, 박수만, 박문종, 서기문, 김효삼, 박동신, 김도기씨 등이 참여해 회화, 서예, 조각 등 4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10호 이내의 소품들이 주로 출품돼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희원씨는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과 마을 풍경을 조화롭게 묘사한 '그림자 여행-짝사랑'을 선보인다.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푸른 지붕과 담에 기대어 있는 여인의 모습을 대비시켜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정선휘씨는 한지에 달빛이 스며드는 아늑한 분위기를 형상화한 조각품을 전시한다. 손 안에 담긴 반딧불이의 불빛이 손가락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비치는 것처럼 전시장 안을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물들인 작품이다.

이 밖에 송필용씨는 시원스럽게 떨어져 내리는 물줄기와 살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봄의 생명력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박수만씨는 만화적 감수성을 자아내는 핑크색 인물상을 선사한다. 한편 예비사회적 기업인 무돌아트컴퍼니는 아트상품 개발이나 각종 문화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지속적 창작활동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문의 062-234-272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봄바람 타고 온 '묵향'

광주 서묵회 메트로갤러리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광주지역 서예가 모임인 서묵회(회장 명노생)가 25일~3월3일까지 메트로갤러리에 묵향 그윽한 글시를 풀어 놓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석만, 백용원, 강병길, 오병록, 이인중, 박래근, 김희옥, 박광규, 박영란씨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해서, 전서, 예서 등 다채로운 글씨체를 선보인다.

엄정하면서도 단아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있는 글씨체로 표현된 사자성어와 시, 불교 용어 등의 문구는 인생의 길잡이가 될 만한 깨우침을 준다. 문의 062-226-805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명노생 작 '항만'

로고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대학생 중심 25명구성… 내일 광주문예회관

'로고스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훈〈사진〉씨가 단장과 지휘를 맡은 로고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악장 강하선씨 등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를 펼치고 있는 로고스챔버오케스트라와 유대관계를 맺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3번 F장조'와 드보르작의 '현악 오케스타를 위한 세레나데 1번 E장조'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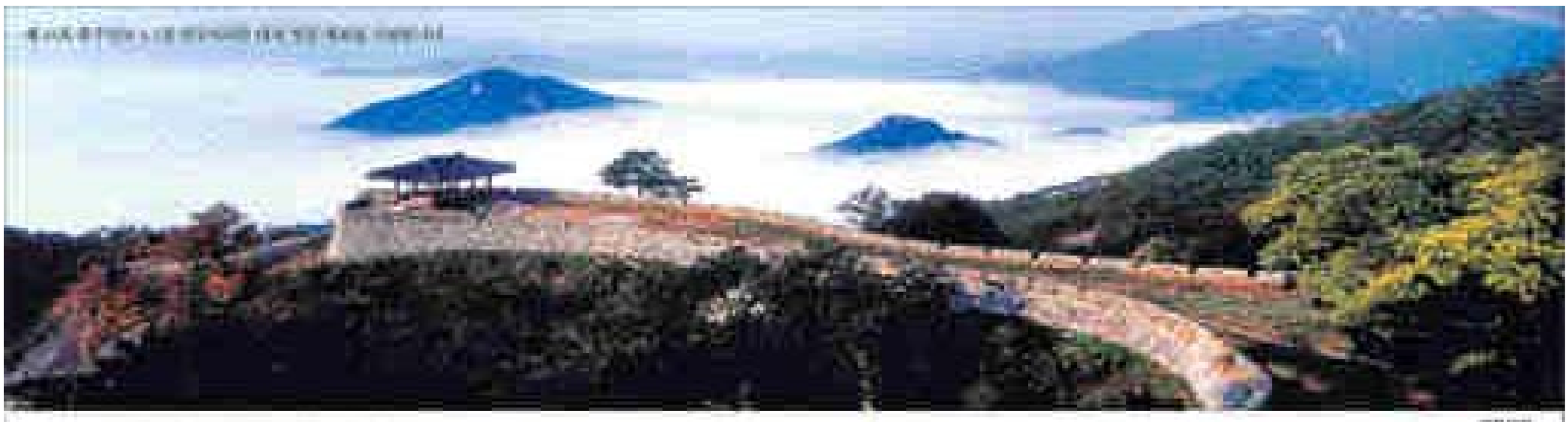
또 뮌헨 국립 음대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마리솔씨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를 협연한다. 문의 011-605-47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박물관 조정육씨 초청 '미술과 인생' 토요강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이 박물관 교육관에서 미술 사학자 조정육(서울산업대 교수·사진)씨를 초청해 '미술과 인생'을 주제로 토요특설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 조씨는 조선의 대표 화가인 김홍도의 '씨름'과 윤두서, 신윤복 등의 작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조씨는 동양미술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림공부, 사람공부' 등의 책을 펴냈다. 문의 062-570-7025.

/오광록기자 kroh@



'대숲맑은' 담양

담양군 www.damyang.go.kr